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만

Sultanate of Oman

2020년8월13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0천 km ²	인구 4.6백만 명 (2019년)	정치체제 절대군주제	대외정책 중립
GDP 761억 달러	1인당GDP 16,488달러	통화단위 Omani Rial	환율(\$기준) 0.3845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북동쪽으로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카부스(Qaboos) 전 국왕의 통치(1970년부터 약 50년) 아래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통해 일찍이 고소득국 대열에 합류하여 근대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중국·이란·GCC국가들 간 분쟁에서 외교적 중립을 지키는 등 대내외적 평화를 유지하였음.
-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OPEC+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석유산업의 변동성이 커지자 석유 의존도가 높은 오만 경제는 역성장, 경상·재정수지 적자 확대, 공적채무 증가 등 경제지표 악화가 전망되고 있음.
- 2020년 1월 오만의 경제적 부흥과 중동 평화를 이끈 카부스 전 국왕의 사망으로 사촌관계인 하이삼(Haitham)이 왕위를 평화적으로 승계, 전 국왕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지지도가 낮고 경제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3. 28. 수교 (북한과는 1992. 5. 25. 수교)

주요협정 항공협정('87), 문화협정('95),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중과세방지협약('06), 외교관·관용·특별·공무사증면제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641,218	674,885	643,228	자동차, 철강판, 석유화학합성원료
수 입	2,333,294	2,775,072	2,675,102	천연가스, 기타석유화학제품, 원유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3월말 누계, 총 투자기준) 59건, 794,954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5.1	0.3	1.8	0.5	-6.5
소비자물가상승률	1.1	1.6	0.9	0.1	-0.8
재정수지/GDP	-21.6	-13.9	-8.7	-9.1	-19.0

자료: IMF, EIU

국제유가 하락 및 OPEC+ 합의에 따른 감산 이행으로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6.5%) 전망

-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조치(lock down),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원유의 국제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주요 10개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상 최대 감산 규모인 9.7백만 배럴/일 감산에 합의한 바 있음.
- 석유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은 오만 경제는 국제유가 약세 및 OPEC+ 합의에 따른 감산 할당량(0.2백만 배럴/일) 이행으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6.5%)을 기록할 전망이다.
 - 오만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금년 3월 국경을 폐쇄하고 4월 수도 무스카트(Muscat), 6월 도파르(Dhofar) 주 등을 봉쇄함에 따라 관광산업 및 내수 위축 등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전망

-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오만은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브렌트유 기준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53.03달러 및 45.13달러였던 2015년 및 2016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각각 -17.6% 및 -21.6%까지 악화되었음.
- 이후 국제유가가 2018년 71.34달러, 2019년 64.28달러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8.7% 및 -9.1%로 개선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가 40.53달러 수준(1~7월 평균)으로 하락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19.0%로 악화될 전망이다.
- 차입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해온 결과 GDP 대비 공적채무(public debt)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19년 60.5%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 말에는 8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소폭 하락(-0.8%) 전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로 인한 내수 감소, 경제활동 위축과 주택 가격, 수도·전력·가스 요금 등의 하락으로 2020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8%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21년 부가가치세(5%) 도입 및 에너지 가격 상승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 내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에너지 부문 재정수입 감소로 국내총투자 위축

- 에너지 부문 재정수입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public investment)의 주요 재원이 되어 왔으나, 국제유가 약세 및 OPEC 감산 합의로 인한 에너지 부문 재정수입 감소로 2016년 28.9% 수준이었던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은 2019년 23.7%까지 하락한 상황임.
 - EIU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즉위한 하이삼(Haitham) 신임 국왕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투자의 감축을 통한 긴축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 상 수 지	-12,539	-10,981	-4,347	-5,457	-13,215
경상수지/GDP	-19.2	-15.6	-5.5	-7.2	-20.3
상 품 수 지	6,258	8,764	18,085	17,478	6,362
상 품 수 출	27,544	32,886	41,730	38,546	22,268
상 품 수 입	21,287	24,121	23,645	21,068	15,906
외 환 보 유 액	19,931	15,835	17,141	16,374	13,524
총 외 채	44,410	64,235	74,482	80,935	88,429
총외채잔액/GDP	67.8	91.0	94.0	106.3	135.5
D.S.R.	13.5	14.9	17.8	16.8	33.1

자료: IMF, EIU

오만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수요 감소로 상품수출 급감,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19년 기준 오만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약 40%)인 중국은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 가동 및 수송 중단 등으로 원유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중국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원유 수요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지하는 상품수출(총수출의 약 90%)이 전년 대비 4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및 주요 도시 및 주(州)의 폐쇄(수도 무스카트 및 도파르 주 등)로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서비스수출도 전년 대비 70% 감소가 전망되는 바, 2020년 총수출은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오만 정부의 재정난 및 공공 부문 투자여력 감소로 자본재, 원자재 등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총수출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7.2%)에 비해 크게 악화한 -2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수입 급감으로 인해 5.7개월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2020년에는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재정수입 감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져 자본재, 원자재, 기계장비 등 수입규모가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환보유액 감소(-17%)를 상회하는 수입 감소로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019년 말 5.0개월보다 증가한 5.7개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고유가 시기에 축적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달러페그제 유지

- 오만은 고유가 시기에 원유 수출로 축적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1986년부터 달러페그제(달러당 0.3845리얄)를 유지해오고 있음. 다만, 외화수입원이 주로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됨에 따라(수출의 약 60%), 2016년 19,931백만 달러 수준이었던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 약세 장기화로 2019년 16,374백만 달러까지 감소하여 달러페그제의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임.

외채상환능력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대외 차입에 의존하여 총외채 부담 가중

- 오만은 국제유가 하락이 시작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하였음. 이후 지속된 재정·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을 대외차입에 의존한 결과, 2020년 말 총외채 잔액은 GDP 대비 135.5%로 전년(106.3%) 대비 증가가 전망됨.
- 2020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부문 수출 급감(-45%)으로 인해 총수출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은 2019년 182.5%에서 2020년 362.1%로, D.S.R.은 2019년 16.8%에서 2020년 33.1%로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구조적취약성

높은 석유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의 문제점 노출

- 오만은 국제유가 하락이 시작된 2014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가 원유시장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에너지 부문은 2019년 기준 재정수입의 약 75%, 수출의 약 60%를 점유하여 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수준임.
-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경제 역성장 및 재정·경상수지 적자 심화가 전망되는 등 높은 석유의존도로 인한 경제구조 취약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남. 2014년 이후 지속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정적자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비석유 부문에의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다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성장잠재력

원유 확인매장량은 향후 15.2년간 생산가능한 수준으로 인근 산유국들 대비 성장잠재력 저조

- 원유 확인매장량은 54억 배럴이며 이는 향후 약 15.2년간 생산가능한 규모로 향후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경제성장이 기대되나 인근 걸프 지역 산유국들 대비 성장잠재력은 저조함.

걸프 지역 산유국별 원유 확인매장량 및 R/P 비율*

국가	확인 매장량	R/P 비율*
사우디아라비아	2,976억 배럴	68.9
이란	1,556억 배럴	120.6
이라크	1,450억 배럴	83.1
쿠웨이트	1,015억 배럴	92.8
아랍에미리트	978억 배럴	67.0

* R/P(Reserves to Production) 비율 : 당해 연도 말 확인 매장량을 당해 연도 생산량으로 나눈 비율로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몇 년간 생산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카잔(Khazzan) 지역 61광구에서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전망

- 2017년 말부터 카잔(Khazzan) 지역의 61광구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동 광구에서 2019년 기준 10억 ft³/일의 가스 및 3.5만 배럴/일의 초경질원유(condensate)가 생산되었음. 현재 2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약 5억 ft³/일의 가스 및 3.5만 배럴/일의 초경질원유 추가 생산) 2020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오만은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천연가스 자원을 새로운 수입원 및 전력발전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음.

2018년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세

-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0에 의하면 2019년 오만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규모는 2018년(4,191백만 달러) 대비 25% 감소한 3,12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제유가 약세로 인한 오만의 투자 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함.
- 주요 투자자들인 GCC 회원국들의 코로나19 사태 및 낮은 국제유가로 인한 투자여력 저하로 2020년에도 오만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 지수 순위 하락(2018년 47위 → 2019년 53위)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 보고서에서 오만의 순위는 2018년(47위/140개국) 보다 하락한 53위/141개국을 기록하였음. 이는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을 반영한 거시경제 안정성의 급격한 저하(2018년 58위/140개국 → 2019년 119위/141개국)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정책성과

장기 경제개발계획(Vision 2040) 수립을 통한 경제 다변화 모색 및 실업난 해소 노력

- 오만 정부는 2021~40년간 장기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40 수립을 통해 어업, 관광업 및 운송업 등의 육성을 통한 경제 다변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 및 실업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 오만 정부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자국민을 공공 부문에 지속적으로 고용한 결과 공공 부문은 자국민(약 45%), 민간 부문은 외국인 노동자(약 85%)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 최근 지속된 재정난으로 공공 부문의 고용 및 임금 인상 둔화가 불가피해지자 오만 정부는 기업에 대해 자국민 고용 의무(Omanization)를 강화하고 있으나, 금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민간 부문 종사자들이 대거 실직하는 등 민간 부문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실업 문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및 재정난 극복 노력

- 오만 중앙은행은 환율 및 경제 안정을 위해 1986년부터 달러페그제를 유지해 옴. 또한, 금년 3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1.25% → 0.25%)하자 오만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1.25% → 0.5%)하는 등 미국 통화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임.
- 오만 재무부는 2020년 에너지 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수입 급감 전망에 따라 4월경 정부 부처들에 임금 및 복지 삭감 등 예산 축소(10% 이상)를 지시한 바 있음. 이외에도 공공 부문 신규 채용 중단, 부가세 도입(2021년 예정)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정치동향

2020년 1월 카부스(Qaboos) 국왕 서거, 선왕의 사촌인 하이삼(Haitham) 왕자가 평화적으로 왕위 계승

- 2020년 1월 10일 80세를 일기로 서거한 카부스(Qaboos) 국왕은 1970년 부왕(父王)을 무혈 쿠데타로 축출하고 즉위한 이후 50년간 통치하며 오만을 평화로운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고, 미국·중국·이란·걸프 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 간 분쟁에서 외교적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대내외적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인물임.
- 2019년 카부스 국왕의 건강이 악화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였으나, 카부스 국왕이 비밀 서한에 후계자로 지명한 사촌 하이삼(Haitham) 왕자가 왕위를 평화적으로 계승하였음.

하이삼 국왕의 국정 장악 능력과 정책 기조에 의해 정치안정성 지속여부 결정 전망

- 하이삼 국왕은 선왕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권 체제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경제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임 국왕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IHS Markit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이에 따른 긴축재정정책 운용이 정부 추진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 연속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함.
- 지난 50년간 오만의 정치-사회적 안정의 상당 부분이 전임 카부스 국왕의 개인적 영도력과 카리스마에 의존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신임 하이삼 국왕의 국정 장악 능력과 대중적 인기 확보 여부에 따라 오만의 정치-사회적 안정 지속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사회동향

높은 실업률,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증가

- 2011년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반정부 시위 운동 물결이 일면서 오만에서도 천여 명이 모여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의 와중에 증세, 복지지출 삭감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가 단행될 경우 신임 국왕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불만 표출 및 시위 발생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음. 다만, 오만의 현 정치체제를 위협할 수준으로 사회 불안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임.

국민의 약 75%가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이바디(Ibadi)파로 사회적 안정 유지

- 오만 국민의 약 75%는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이바디(Ibadi)파 무슬림임. 이바디파는 '문자 그대로의 쿠란 해석'을 경계하여, 신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차단함에 따라 수니파와 시아파에 비해 온건한 종파로 평가됨. 이바디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에 비해 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이며, 오만 정부는 자국 내에서 일하는 비무슬림 외국인들을 위한 종교시설(가톨릭 성당, 불교 사찰, 힌두교 사원 등)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단, 여타 이슬람 종파와 마찬가지로 무슬림이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함.
- 온건 성향의 이바디파가 다수인 관계로 종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없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수니파도 시아파도 아닌 제3의 종파인 이바디파 중심의 오만은 수니파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과 시아파 국가들(이란, 이라크) 간의 중재적 역할을 하고 있음.

국제관계

인접국인 예멘의 내전 장기화는 오만의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예멘의 내전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진영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 그리고 옛 남예멘 분리독립 추구 세력 간의 충돌 지속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는 예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오만의 국가안보 및 치안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립 외교정책이 위협받을 가능성 잠재

- 오만은 이란 핵합의(JCPOA)를 둘러싼 미-이란 갈등, 예멘 내전에 개입하며 대립 중인 사우디아라비아-UAE-이란 갈등, 카타르 단교 사태 등 각종 외교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재정 악화로 GCC 국가들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자금을 지원한 GCC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동맹을 요구받는 경우 중립 외교정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 없음

- 2020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오만에 대한 원리금 잔액 11,731.8백만 달러(단기 135.5백만 달러, 중장기 11,596.3백만 달러) 중 연체금액이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 다만, 2019년 7월 IMF의 Article IV 보고서에 따르면, 오만의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지고 재정 개혁이 지연되고 있으며 외채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0.01)	4등급 (2019.01)
Moody's	Ba3 (2020.06)	Ba2 (2020.03)
Fitch	BB (2020.03)	BB+ (2019.07)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 2020년 들어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

-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오만의 높은 석유 의존도, 재정·경상수지 적자 심화, 공적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을 이유로 2020년 들어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 8월 현재 국제신용평가사들 모두 오만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오만은 310천 km²의 비교적 작은 국토와 400만 명대의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석유자원 및 대내외 정치·사회적 안정을 기반으로 고소득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역내 타 국가들에 비해 정치·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편임.
- 다만, 오만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향후 15.2년간 생산가능한 수준으로 걸프 지역 산유국들에 비해 석유 산업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이 낮은 편이어서 일찍이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였으나, 정책성과는 미미한 편이며 석유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절대적임.
-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국제유가가 폭락하자 오만 경제는 역성장, 재정·경상수지 적자 및 공적채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를 근거로 오만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